

Steve Kamper
Minister for Small Business
Minister for Lands and Property
Minister for Multiculturalism
Minister for Sport



보도 자료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을 빛내 준 시드니의 활기찬 음력설 축하잔치

2025 년 2 월 5 일, 수요일

이미지:

NSW 정부가 주최한 연례 음력설 축하잔치에서 중국의 사자춤 공연단, K 팝 카버 밴드 그리고 환희에 찬 군중들이 뱀의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어젯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상징적인 돛 모양 지붕들이 환한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음력설은 춘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전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한국, 베트남 그리고 기타 동양권에서 수백만이 이를 경축한다.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구정이 다문화 캘린더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 주의 문화 다양성 유산 및 주 내의 지역사회들과 그들의 아주 오랜 전통을 연결하는 강한 유대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뱀의 해는 적응성, 관용, 지혜, 신비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의 축하잔치는 고대 중국의 십이간지 상으로 드문 일인 두 번의 입춘이 드는 해이어서 더욱 더 경사스러웠는데, 쌍춘년은 많은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진다.

시드니에서의 구정 축하잔치는 더욱 규모가 커져 가두 퍼레이드, 야시장 그리고 문화공연들이 현지 주민과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문화 장관 스티브 캠퍼 씨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다이내믹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음력설을 경축하는 것은 우리 아시아계 호주인 지역사회의 문화전통을 기리는 것이며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인 단합, 존중 및 번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정을 세는 것은 유니크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강화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글로벌한 전통과 유대를 맺고 있는 지 뚜렷이 보여 줍니다.”

“NSW 정부는 음력설을 축하하는 모든 지역사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영을 누리는 새해를 맞기
기원합니다.”

다문화 NSW CEO 인 조세프 라 포스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력설은 우리 주의 다문화 캘린더 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붉은 조명으로 물든 오페라 하우스의 돛 모양 지붕으로부터 활기찬 사자놀이 및 K 팝 공연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문화 지역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해 주며 우리의 미래를 강화시켜
주는 지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음력설은 부활과 관계의 시간이며, 현대에서 고대의 전통이 다시 숨쉬는 축하잔치입니다. 이 행사는
NSW 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우리 주의 다양한 지역사회들의 힘을 뚜렷이 드러내어 줍니다.
모든 분들이 행운과 지혜 그리고 평화로 가득한 한해를 맞으시기 기원합니다.”

미디어: 조나단 시몬즈 | 캠퍼 장관 | 0407 488 158